

애착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김 순 영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김 환[†]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다. 서울 소재 온라인대학에서 상담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 자녀가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하여 애착유형, 자존감,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양육태도점수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애정적 태도, 적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점수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안정애착은 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에 비해 애정적 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적대적 태도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통제적 태도 점수에서는 불안애착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애착의 하위차원과 양육태도 차원의 상관분석 결과, 애착의 의존 차원은 주로 애정-적대 차원 양육태도와 상관을 나타냈다. 애착의 친밀 차원과 불안 차원은 양육태도의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에 동시에 상관을 나타냈는데 상관 패턴은 반대였다. 그리고 애착이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살펴 보았다. 매개분석에 따르면, 애정-적대 양육태도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는 독립변인인 애착의 영향을 자존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통제 양육태도 차원을 종속 변인으로 하였을 때는 독립변인인 애착의 영향을 자존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애착, 성인애착유형, 양육태도, 애정-적대 양육태도 차원, 통제-자율 양육태도 차원, 자존감

[†] 교신저자 : 김 환,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 02-944-5023, E-mail : loveyer@daum.net

서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는 부모들의 영원한 관심사이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인지적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키우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특히 정서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남상인, 1983).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다(권옥자, 1987; 박미정, 1993; 오금희, 1985; 이원영, 1983; 이진희, 1998; 임진영, 장재숙, 2003; 천희영, 1993; 허묘연, 1999; Baldwin, 1945; Watson, 1961).

그렇다면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Belsky(1984)는 양육의 결정인에 대한 과정 모델(process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을 제시하였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3가지 요인이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째는 부모 자신의 발달력과 심리적 특징이고, 둘째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스트레스나 지지, 셋째는 자녀의 특성이다. Belsky(1984)는 이 3가지 요인 중에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에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Belsky, Crnic & Woodworth, 1995).

본 연구에서는 Belsky(1984)이론에 근거하여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 중 애착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애착

은 대인 상호작용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Bowlby(1969)가 처음 제안하였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은 성인의 대인관계에도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데,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부모 자신의 애착이 미래의 양육 행동이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유희정, 강연옥, 이훈진, 2004; Cohn, Silver, Cowan, Cowana, & Pearson, 1992; Crowell & Feldman, 1988). 안정 애착의 부모들은 불안정 애착의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좀 더 반응적이고 예민하며 다정하다고 한다(Crandell, Fitzgerald, & Whipple, 1997; Pederson, Gleason, Moran, & Bento, 1998).

부모자신의 애착이 훗날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변수와 후행하는 변수 사이에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매개변수(mediator)들이 있을 수 있다. 애착과 양육태도 사이의 매개변수 역할을 살펴본 선행 연구를 보면, van Bakel과 Riksen-Walraven(2002)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고 안명희(2010)는 자아유능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자존감(self-esteem)이 애착과 양육태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양육태도는 Schaefer(1959)의 이론에 따라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으로 구분한 후, 애착이 양육태도의 이 두 차원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였다.

양육태도의 개념과 양육태도 이론

한 개인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면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나가는 곳이 가정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슬하에서 보호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자녀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정의적 성격 형성의 주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성격에 기인하며, 가족구성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적 조건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어서 자녀의 성격형성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배숙진, 1998).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가 이론적으로 연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엄격한 훈육과 체벌이 가장 효과적인 양육형태로 인식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아의학 및 심리학의 발달이 양육태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켰고 부모의 태도 변화도 수반되었다(이원영, 1983).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ishbein과 Ajzen(1975)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양육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 마혜정(2004)은 보편적으로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

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신의 성격 뿐 아니라 정서 상태, 가치관,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가족구성, 가정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적 조건등과 깊이 관계 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남상인, 1983).

처음으로 양육태도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서, 양육태도를 수용-거부와 지배-복종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2개의 차원을 다시 분류하였는데,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에는 맹종형과 익애형으로 총 8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Symonds(1949)는 2개의 차원에서 각각 중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하였다. Symonds(1949)의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2개 차원으로 분류하여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는 기여한 바가 크지만 정신분석학적인 임상사례에 너무 치중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설명되었고 긍정적인 측면이 배제되어 있는 관계로 정상적 규준에 의거한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이원영, 1983).

Symonds와 함께 2개 차원으로 양육태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Schaefer(1959)에서도 있었다. Symonds가 임상적 사례에 비추어 양육태도를 분류했던 것과는 달리 Schaefer(1959)는 정상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장기적

으로 연구하여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인 원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각종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변인들 중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있는 변인과 서로 대립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각 변인의 위치를 원형상에 나타내었다. 즉, 양육태도를 애정-적대(Love-Hostility), 자율-통제(Autonomy-Control)라는 두 개의 직교차원들로 구축된 4가지 양육태도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애정적-자율적 태도(affectional-autonomic attitude)는 애정적이고 자율을 허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이 유형의 부모들은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협동적이다. 애정적-통제적 태도(affectional-controlling attitude)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과보호적 유형으로 이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아동의 행동을 부모가 결정하고 새로운 탐색을 제한하며 자녀의 어려움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적대적-자율적 태도(rejecting-autonomic attitude)는 비수용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로 인해 자녀가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므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 심하면 범죄를 초래하게 된다. 적대적-통제적 태도(rejecting-controlling attitude)는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체벌을 가하며, 권위적이며 독재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Schaefer(1959)는 중용을 강조했던 Symonds(1949)와는 달리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애정적-자율적 태도를 지지하였다. Schaefer는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양육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Watson(1961), Becker(1964), Medinnus(1967) 등의 학자들은 Schaefer(1959)의 모형에 실질적인 응용과 변형 및 확장, 그리고 두접근의 혼합-질층 형식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Baumrind(1967)는 부모의 자녀 다루는 방식을 아동의 반응에 대한 관심과 통제 정도에 따라 세가지 유형, 독재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를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에 따라서 분류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애정-거부(적대), 자율-통제라는 두 축으로 분류한 Schaefer의 이론적 가정에 동의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Schaefer(1959)의 이론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 구분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기 연구자들이 양육태도 유형 구분을 제안한 후 후속 연구자들은 어떤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가장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다. 양육태도를 분류한 각 학자들은 특정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지에 대해 가설들을 제기해왔다. 연구자들은 이런 가설들을 다양한 장면에서 확인하였는데, 예를 들어 Bandura와 Walters(1959)는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연구에서 범죄자의 부모들이 훨씬 더 거부적이었고 애정이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Hurlock(1978)은 권위적, 보수적,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창의성을 제한시킨다고 지적하였다.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은 돌봄이 부족한 양육태도와 과잉통제적 태도가 자녀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원유미와 정미라(2001)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고, 이미정(2001)은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아동의 학업성취(김기정, 1984), 학업동기(노명희, 1991), 학업적응 및 교우관계(정은진, 2003)에도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양육태도 유형 구분 및 양육태도의 영향 연구 외에 양육태도의 결정인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Belsky(1984)는 양육태도의 결정인으로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 사회적 맥락에서의 스트레스나 지지, 그리고 자녀의 특성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그의 연구는 부모 자신이 어떻게 양육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후 연구들에서는 엄하게 양육되거나 또는 지지적으로 양육된 경험이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Capaldi, Pears, Patterson, & Owen, 2003; Conger, Neppl, Kim, & Scaramella, 2003; Belsky & Fearon, 2004; Chen & Kaplan, 2001). 우울이나 초조함과 같은 정서상태는 덜 반응적이고 엄한 양육태도로 이어졌다(NICHHD, 1999; Kanoy, Ulku-Steiner, Cox, & Burchinal, 2003; Brody, McBride, Kim, & Brown, 2002). 외향성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반응적이며 자극을 주는 양육태도로 이어졌다(Belsky, Crnic, & Woodworth, 1995; Belsky, Jaffee, Sligo, Woodward & Silva, 2005; Losoya, Callor, Rowe, & Goldsmith, 1997). 아쉽게도 국내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다소 낮았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관련성은 많이 밝혀왔지만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을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심을 가진 일부 연구들이 있었는데,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은 부모 자신의 성인애착이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권미란(2007)은 자존감과 자기 평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애착과 양육태도 유형의 관계

애착은 대인 상호 작용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Bowlby(1969)가 처음 제안하였는데, 애착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하게 하는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이라고 정의하였다. Bowlby(1969)는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어 이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내적 작동모델이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에 해당한다(Bowlby, 1969).

Bowlby는 심리적 애착형성이 신체적 돌봄만큼 중요하다고 보았다. Bowlby와 Ainsworth로 대표되는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되고(Ainsworth, 1989)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됨에 따라(Kirpatrick & Davis, 1994; Feeney & Noller, 1991; Hazan & Shaver, 1987)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는 애정적 유대관계로 정의되었다(장휘숙, 1997).

이와 같이 생애 초기에 애착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급격하게 발달된 애착체계는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하나의 성격적 특성으로 굳어진다(Feeney, 1999; Mallinckrodt, 2000). 결과적으로 내적 작동모델은 주요 애착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친밀감과 안정감의 조절과 충족을 중심으로 발달하며 개인적인 잠재력과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성인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Collins & Read, 1990; Haze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즉 생애 초기의 애착 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 성인기까지 계속된다. 성인으로 이어진 애착을 성인애착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징인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노라, 2000).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된 부모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인애착 양식의 기초를 이루는 차원과 애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척도(AAS)를 통해 부모의 성인애착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애착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은 아동의 애착유형을, Hazan과 Shaver(1987), Bartolomew와 Horowitz(1991), Collins와 Read(1990)는 성인 애착유형을 구분하였다. 학자마다 세부적인 구분은 달랐지만 크게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불안정 애착의 경우 다시 회피형과 불안형으로 나눌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Collins와 Read(1990)는 의존(depend), 친밀(close), 불안(anxiety)의 세 차원을 조합하여 애착 유형

을 구분하였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타인을 의지할 수 있으며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이 없으면 안정 애착으로 보았으며 의존, 친밀, 불안의 세 차원에서 모두 낮으면 회피형, 그리고 세 차원에서 모두 높으면 불안형으로 보았다. 아동의 경우 불안형과 회피형 외에 혼란된 유형이 있을 수 있고(Ainsworth 등, 1978) Bartolomew와 Horowitz(1991)는 회피형을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였으나, 성인애착유형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회피형과 불안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모 자신의 애착은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유희정, 강연옥, 이훈진, 2004; Cohn, Cowan, Cowna, & Pearson, 1992; Crowell & Feldman, 1988). 그렇다면 애착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 간 구체적 관계 양상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안정애착 유형의 경우, 안정 애착의 부모들은 불안정 애착의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좀 더 반응적이고 예민하며 다정하다고 하는데(Crandell, Fitzgerald, & Whipple, 1997; Pederson, Gleason, Moran, & Bento, 1998), 이것은 Schaefer(1959)의 애정적 양육태도, Symonds(1949)의 수용적 양육태도, Baumrind(1967)의 허용적 양육태도와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회피애착 유형의 경우, 회피 애착은 친밀감을 불편하게 여겨 사람을 피하는 것이 특징인데, 부모의 이러한 대인관계 특징이 자녀 양육에서도 나타난다면 자녀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자녀의 요구에 둔감하거나 다소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Symonds(1949)는 이런 양육태도를 거부적 태도로 그리고 Schaefer(1959)는 적대적 태도로 개념화하였다. 기존 연구 중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은 적대적(거부적) 양육 태도 점수가 회피 애착에서 가장 높았고 안정 애착에서 가장 낮았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회피형 애착에서 적대적(거부적) 양육 태도가 나타남을 확인한 것이다.

세 번째로 불안 애착 유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하게 지내려는 욕구가 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버림받지나 앓을까 하는 불안해하는 애착 유형이다. 흔히 불안은 실재하는 대상보다는 상상적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불안이 높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많고 우유부단하며 의존적이거나 충동적인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불안 애착이 양육태도로 이어진다면 이론적으로 볼 때 자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어느 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녀를 통제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행동 간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모 자신의 애착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탐구하지 못하였다. 그 중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은 Schaefer(1959)의 양육태도를 이용하여 부모의 애착 유형 간 양육태도 점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애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애착유형 간 주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적대적 양육태도에서는 애착유형 간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적대적 태도 점수는 회피애착, 불안애착, 안정애착 순서로 높았다. 자율적 양육태도에서도 애착유형 간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자율적 태도 점수는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순서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애착유형 간 주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자존감과 양육태도의 관계

앞서 살펴본 Belsky(1984)의 3가지 양육결정인 모델에서는 양육태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 자신의 발달력과 심리적 특징을 꼽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같은 발달력에서 보이는 관계적 변인과 함께 부모 개인의 심리적 특징 중 하나로 내재화된 자신에 대한 개념인 자존감(Self-Esteem)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양육태도로 연결되어질 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하였다.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특성이며 자원이다(Coopersmith, 1967; Rosenberg, 1985). 자존감은 자아개념, 자아상, 자기평가, 자기수용 등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며, 특히 자아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판단적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자존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이처럼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 평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Rosenberg, 1965).

이렇듯 자존감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임상·상담심리학 분야에서 다루지는데, 자녀 양육태도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연구되었으나(김진영, 2012;

송영이, 2011; 이미정, 2001; 이미정, 2010; 정은혜, 2012), 부모 자신의 자존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미하다. 선행연구로 Mussen(1990)은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가 배우고 따라야 할 긍정적 모델이 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심희옥(1998)은 부모의 자존감은 아동이 가족관계에서 적응하고 사회적 발달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권미란(2007)은 Schafer(1959)의 양육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자존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권미란(2007)은 MBRI척도의 애정적 양육태도 점수와 적대적(거부적) 양육태도 점수를 한 차원으로 묶어서 애정적 차원으로 설정하였고, 자율적 양육태도 점수와 통제적 양육태도 점수를 묶어 자율적 차원으로 설정한 후, 자존감과 양육태도 관련성을 직접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애정적 차원 점수와 자율적 차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자존감과 애정-적대적 차원과의 상관은 높았으나 자존감과 자율-통제적 차원과의 상관은 비교적 낮았다. 권미란(2007)은 자존감 외에 자기평가라는 변인도 살펴보았는데, 자기평가 역시 애정-적대적 차원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자율-통제적 차원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때 자존감은 양육태도 중에서 애정-적대적 차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좀 더 자율적으로 양육하고 덜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Bryant(1989)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집착하고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불안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안하여 과도한 통제를 시도할 수 있다. 안명희(2010)는

자존감은 아니지만 자아유능감이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존감이 양육태도의 자율-통제 차원에 비해 애정-적대 차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지 반복검증해 보았다.

애착과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 역할

Bowlby(1977)의 주장대로 인생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존감은 물론 정서와 행동의 규제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장휘숙, 1998). 그러나 인간의 발달은 Erikson(1968)의 주장대로 점성원리(epigenetic principle)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장한 이후의 발달은 누적된 발달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생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전생애 동안 발달과정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자기 관련적(self-related) 개념이나 특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자기 관련적 개념은 다시 후속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점성적 발달 양상이 가정될 수 있다(장휘숙, 1998). 자기 관련적 개념의 대표적 예로 자존감(Self-Esteem)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착이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모 자신의 특성과 관련된 개념인 자존감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했다. 부모의 자존감이 부모 자신의 애착과 양육태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이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행동이나 정신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두 세대에 걸친 연구들이 많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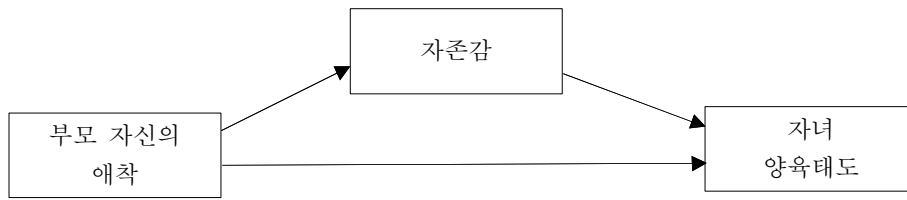


그림 1. 애착과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 역할

(장휘숙, 1998; Cohn, Cowan, Cowna, & Pearson, 1992; Crowell & Feldman, 1988), 부모 자신의 애착이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였다. 자존감이 아닌 자아유능감이나 자아탄력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것은 있었는데, 먼저 안명희(2010)는 자존감 대신 자아유능감 변인을 사용하여 애착이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아유능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바 있다. 부모의 자아유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효능감과(Bandura, 1989) 부모역할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의 정도(Coleman & Karraker, 2000; Gondoli & Silverberg, 1997)를 포함하는 부모의 성격적 특징이다. 안명희(2010)는 애착이 심리적 통제로 이어질 때 자아유능감이 그 과정을 매개한다고 보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심리적 통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회피애착의 경우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외국 연구 중에 자존감은 아니지만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한 것은 있었다. van Bakel과 Risksen-Walraven (2002)은 자아탄력성이 부모 자신의 애착과 양육태도의 사이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도 자아유능감이나 자

아탄력성과 같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기존 연구에서 자존감과 애정-적대적 양육태도 차원의 상관은 높지만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차원의 상관은 낮게 나타나므로(권미란, 2007) 이들을 비교하기 위해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안정애착은 애정적 양육태도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회피애착은 적대적 양육태도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불안애착은 자율적 양육태도 및 통제적 양육태도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4. 자존감은 자율-통제 차원에 비해 애정-적대 차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5. 부모의 애착은 자신의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소재 온라인대학생 중 ‘상담심리학’

과목을 듣는 수강생 4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를 키우면서 실제 양육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중 남성은 94명, 여성은 36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2.18세(범위 27~64세)였다. 자녀 수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사람은 123명, 자녀가 2명인 사람이 283명, 자녀가 3명인 사람은 51명이었으며, 자녀가 4명 이상인 사람은 4명이었다. 응답자의 자녀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는 35세였다.

측정 도구

양육태도 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Schaefer(1959)가 제작한 어머니 양육행동 측정 척도로서 이원영(1983)이 변안하고 송호경(2004)과 배지우(2010)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chaefer(1959)의 MBRI는 이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하여 양육태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Becker, 1964; Mussen, Conger, & Kagan, 1969). 본래 면접자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총 28개 영역으로 양육태도를 분류하고 평가하였다. 각 영역은 4~7문항으로 구성되었었고 총 문항수는 154개였다. 이원영(1983)은 이를 그대로 5점 Likert식 질문지로 바꾸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총 7개 요인(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어머니의 외향적 태도, 의존성(독립심) 조장 태도, 통제적 태도, 긍정적 평가 태도, 어머니 자신의 의존성)을 추출하였다. 송호경(2004)은 7개 하위 요인 중에서, 양육태도를 애정-거부측과 자율-통제측으로 제한하여 두 개의 측으로 대별되는 4개의 하위요인(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에 대한 4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배지우

(2010)는 이를 더 간략화하여 4개 하위요인에서 각 6문항씩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배지우(2010)가 간략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지우는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를 .73~.86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각각 애정적 태도 .86, 적대적 태도 .74, 자율적 태도 .63, 통제적 태도 .57이었다.

성인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성인애착 질문지는 18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것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의존(depend), 친밀(close), 불안(anxiety)의 세 차원을 측정한다. 의존 하위척도는 중요한 타인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예: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역채점)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밀 하위척도(예: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다소 수월하다)는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 하위척도는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예: 나는 종종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까 봐 걱정스럽다)를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차원의 점수로 애착유형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친밀과 의존 차원의 점수가 높고 불안 차원의 점수가 낮으면 안정 애착, 세 차원에서 모두 낮으면 회피 애착, 세 차원에서 모두 높으면 불안 애착으로 볼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김순영(1998)은 AAS의 내적합치도를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각 .75, .73, .69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각 .69, .61, .61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자기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자존감을 측정하며,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 도구이다. 자기 보고식으로 되어 있고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로 보고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이 시사되었다(이훈진, 원호택, 1995).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이었다.

부모상위정서 척도(Parental Meta-Emotion Scale; PMES) 중 억압적 태도 소척도

정서 표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배지우(2010)가 개발하였다. 부모 상위정서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하고, 비억압적이며, 자각력에 있어 민감하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식 척도이며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감적 수용, 억압적 태도, 자각 민감성, 지지적 신념의 4개 하위 요인으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에서 통제적 태도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보기 위해 PMES 중에서 억압적 태도 소척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억압적 태도 소척도는 자녀를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문항(예: 아이들은 울거나 짜증내는 등 슬픔을 표현하도록 놔두면 버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좋지 않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지우(2010)는 억압적 태도 소척도의 내적합치도를 각각 .7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3이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앞에서 언급한 4개의 척도를 온라인 상에서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먼저 성인애착의 세 차원(의존, 친밀, 불안)과 양육태도의 네 차원의 하위점수(애정적, 적대적, 자율적, 통제적), 그리고 자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성인애착 유형을 김덕일(1996)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안정애착 유형은 의존과 친밀이 평균보다 높고, 불안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였다. 회피애착 유형은 의존, 친밀, 불안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경우였다. 불안애착 유형은 의존, 친밀, 불안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경우였다. 표 1에 피험자 애착유형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김덕일(1996)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정의된 애착

표 1. 피험자 애착유형 분포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미분류	전체
남성	23명	6명	10명	55명	94명
여성	66명	41명	35명	225명	367명
전체	89명	47명	45명	280명	461명

유형에 속하지 않은 미분류 유형이 매우 큰 비중(60.7%)을 차지하고 분석에 사용될 사례수가 줄어들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형별 접근보다는 애착의 세 차원(의존, 친밀, 불안)과 양육태도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애착이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Baron과 Kenny (1986)의 회귀분석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애착은 성인애착척도의 세 하위척도(의존, 친밀, 불안) 점수를 모두 합쳐서 점수화하였는데, 이 때 불안은 역채점하였다. 양육태도의 경우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애정-적대 차원 점수와 자율-통제 차원 점수는 권미란(2007)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애정적 태도 점수를 역채점한 후 적대적 태도 점수와 한 데 묶어 애정-적대 차원으로, 자율적 태도 점수를 역채점한 후 통제적 태도 점수 및 정서표현 통제 점수와 한 데 묶어 자율-통제 차원으로 점수화하였다. 매개 모델의 적합도는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결 과

성차에 따른 애착유형과 양육태도 점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예비분석으로 먼저 연령이 연구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과 연구변인들 사이에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이 연구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통해 차이 검증을 하였다. 먼저 전체 연구 대상의 성인애착척도 점수, 양육태도척도 점수, 정서표현통제 점수, 자존감

척도 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차를 비교해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 점수를 따로 제시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애착의 세 하위차원에서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태도 중에서는 적대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및 정서표현통제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적대적 태도의 경우 여성의 점수가 남성의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F(1,459)=9.165, p=.003$. 자율적 태도의 경우 남성의 점수가 여성의 점수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정서표현통제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정서표현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57)=8.302, p=.004$. 자존감에서도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자존감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F(1,458)=5.301, p=.022$.

애착유형 분류에 따른 양육태도 점수 차이 분석

애착유형을 분류한 후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의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애착유형에 따라 양육태도의 4가지 하위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표 3)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육태도와 함께 자존감에서도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3을 살펴보면, 애정적 태도의 경우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F(2,178)=13.763, p<.001$. Tukey 방식의 사후비교를 살펴보면, 안정애착의 애정적 태도 점수가 회피 및 불안애착의 애정적 태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적대적 태도의 경우 역시 애착유형에 따른

표 2. 애착척도, 양육태도척도, 정서표현통제 척도, 자존감 평균 및 표준편차 (N=461)

척도	남자 (N=94)	여자 (N=367)	F	
애착	AAS 의존	19.021 (3.82)	19.373 (3.43)	.752
	AAS 친밀	20.415 (3.27)	19.956 (3.14)	1.564
	AAS 불안	13.553 (3.24)	13.411 (3.21)	.145
양육태도	MBRI 애정적 태도	24.043 (3.45)	24.104 (3.53)	.023
	MBRI 적대적 태도	16.840 (3.42)	18.038 (3.42)	9.165**
	MBRI 자율적 태도	21.489 (2.90)	20.790 (3.15)	3.814 [†]
	MBRI 통제적 태도	19.415 (3.16)	19.352 (2.91)	.034
	PMES 정서표현통제	17.766 (4.00)	16.337 (4.36)	8.302**
자존감 (RSES)	39.947 (5.21)	38.628 (4.88)	5.301*	

※ 수치는 평균 점수이며 () 안은 표준편차

[†] $p < .10$ ** $p < .01$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F(2,178)=8.957, p<.001$. 여기서는 회피 및 불안애착의 적대적 태도 점수가 안정애착의 애정적 태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간 적대적 태도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율적 태도에서는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적 태도의 경우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F(2,178)=3.067, p=.049$. 불안애착의 통제적 태도 점수가 안정애착의 통제적 태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런데

회피애착의 통제적 태도 점수는 중간으로 다른 애착 유형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서표현을 통제하는 태도의 경우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F(2,178)=6.855, p=.001$. 불안애착의 정서표현 통제 점수가 다른 애착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안정애착과 회피애착 간 통제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양육태도는 아니지만 자존감에서도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있는지 확인

표 3.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점수 차이 분석

	안정애착 (N=89)	회피애착 (N=47)	불안애착 (N=45)	F	사후비교
애정적 태도	25.888 (3.16)	22.851 (3.43)	24.178 (3.40)	13.763**	안정>불안, 회피
적대적 태도	16.191 (3.34)	18.596 (3.00)	17.645 (3.38)	8.957**	회피, 불안>안정
자율적 태도	21.461 (3.23)	20.809 (3.34)	20.911 (2.82)	.830	
통제적 태도	18.584 (2.96)	19.255 (3.10)	19.889 (2.68)	3.067*	불안>안정
정서표현 통제	15.348 (4.21)	16.085 (4.28)	18.089 (3.46)	6.855*	불안>회피, 안정
자존감	42.205 (3.84)	37.383 (4.57)	39.489 (3.49)	23.841**	안정>불안>회피

※ 수치는 평균 점수이며 () 안은 표준편차

※ 사후비교는 Tukey 방식을 사용함

표 4. 여성 응답자의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점수 차이 분석

	안정애착 (N=66)	회피애착 (N=41)	불안애착 (N=35)	F	사후비교
애정적 태도	26.015 (3.10)	22.707 (3.43)	24.178 (3.40)	12.639**	안정>불안, 회피
적대적 태도	16.394 (3.38)	18.732 (2.94)	17.600 (3.529)	6.469**	회피>안정
자율적 태도	21.258 (3.29)	20.659 (3.47)	20.829 (2.99)	.472	
통제적 태도	18.697 (2.91)	19.000 (3.05)	19.771 (2.38)	1.665	
정서표현 통제	14.970 (4.27)	15.878 (4.27)	18.171 (3.36)	7.122**	불안>회피, 안정
자존감	41.923 (3.91)	36.854 (4.41)	39.200 (3.62)	20.731**	안정>불안>회피

※ 수치는 평균 점수이며 () 안은 표준편차

※ 사후비교는 Tukey 방식을 사용함

해보았다. 주효과가 관찰되었는데, $F(2,177) = 23.841, p < .000$, 안정애착의 자존감 점수가 불안애착의 자존감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또 불안애착의 자존감 점수는 회피애착의 자존감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앞에서(표 2) 일부 양육태도 및 자존감 점수의 경우 성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점수 차이 분석을 성별에 따라 각각 실시하였다. 이 때 남성의 경우 애착유형의 주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의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애정적 태도, $F(2,139) = 12.639, p < .001$, 적대적 태도, $F(2,139) = 6.469, p = .002$, 정서표현 통제, $F(2,139) = 7.122, p = .001$, 그리고 자존감에서 확인되었다, $F(2,138) = 20.731, p < .000$.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양상이 비슷하였으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통제적 태도에서 주효과가 나타나던 것이 여성 응답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애착의 하위차원, 자존감과 양육태도 차원의 상관관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애착유형을 분류하여 비교할 때 미분류 유형이 큰 비중(60.7%)을 차지하여 분석에 사용될 사례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애착의 세 차원들과 양육태도 점수 및 자존감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5).

표 5를 살펴보면 애착의 하위 차원 중 의존 차원은 주로 애정-적대 차원의 점수들과 상관을 나타냈다. 애착의 하위 차원 중 친밀 차원은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적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및 정서표현통제에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애착의 하위 차원 중 불안 차원은 친밀 차원과는 반대 패턴을 보였는데,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에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적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및 정서표현통제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정서표현통제와는 .303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5. 애착 하위차원 점수와 양육태도 하위차원 점수 간 상관계수(N=461)

	의존	친밀	불안	애정적 양육태도	적대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정서표현 통제
친밀	.357**							
불안	-.289*	-.392**						
애정적 태도	.210*	.280**	-.301**					
적대적 태도	-.153*	-.280**	.255**	-.482**				
자율적 태도	.071	.108*	-.171**	.243**	-.188**			
통제적 태도	-.051	-.093*	.119*	-.117*	.392**	-.178**		
정서표현통제	-.039	-.097*	.303**	-.192**	.205**	-.260**	.344**	
자존감	.362**	.429**	-.497**	.448**	-.326**	.222**	-.145**	-.269**

애착이 애정-적대 양육태도 차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 역할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먼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매개변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보았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변인(mediator)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네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며,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 (4)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면서 (1)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완전매개) 또는 줄어들어야(부분매개) 한다. 이 때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 한 후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개변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정도라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애착, 종속변인인 양

육태도, 그리고 매개변인인 자존감 사이에는 Baron과 Kenny(1986)의 조건이 잘 충족되었다. 먼저 애착이 애정-적대 양육태도 차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해보았다.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애착은 매개변인인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81, p < .01$, 자존감은 애정-적대 양육태도 차원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543, p < .01$. 그리고 자존감을 통제시에도 애착과 애정-적대 차원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의하였으며, $\beta = -.135, p < .01$, Sobel이 제안한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Z = -7.092, p < .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존감은 애착과 애정-적대 양육태도 차원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매개모델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애착이 자율-통제 양육태도 차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 역할

다음으로 애착이 자율-통제 양육태도 차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해보았다.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을 보면, 애착은 매개변인인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언하며, $\beta = .381, p < .01$,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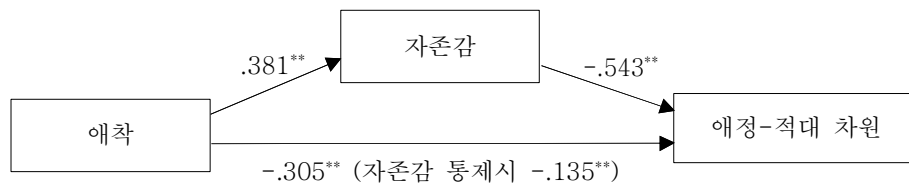


그림 2. 애착과 애정-적대 차원의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 분석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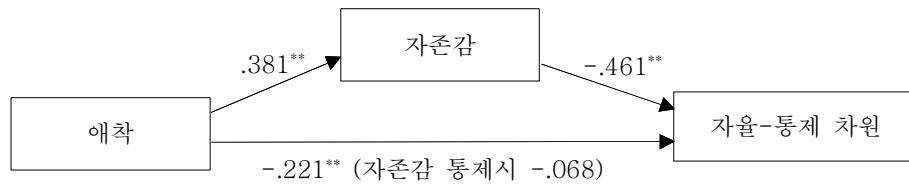


그림 3. 애착과 자율-통제 차원의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 분석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 ** $p < .01$)

은 자율-통제 양육태도 차원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461, p < .01$. 그런데 자존감을 통제 한 후 애착과 자율-통제 차원 사이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beta = -.068, p < .214$. Sobel이 제안한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Z = -6.228, p < .01$. 이 결과로 볼 때 자존감은 애착과 자율-통제 양육태도 차원을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매개모델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 자신의 애착과 자존감을 선정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양상을 변량분석, 상관분석, Baron과 Kenny(1986)의 매개역할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예비분석으로 연구변인들에 연령과 성차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연령의 영향력은 없었으나 성차에 따른 차이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적대적 양육태도를 더 높게 보고하였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서표현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이에 따라 추후 분석에서는 성차를 고려하였다.

변량분석을 통해 애착유형 분류에 따른 양육태도 점수 차이를 확인해보았을 때, 먼저 애정적 양육태도 점수에서 안정애착이 불안정 애착(회피, 불안애착)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참고로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은 애정적 태도 점수에서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결과를 관찰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향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통해 안정애착이 애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적대적 양육태도 점수의 경우 회피애착의 적대적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의 결과와 같다.

자율적 양육태도 점수의 경우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은 안정애착이 가장 높고 불안애착이 가장 낮은 통계적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은 경향성만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이 안정애착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MBRI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 PMES의 정서표현통제 척도의 경우 성차에 관계없

이 안정되게 불안애착 유형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불안애착은 자율적 양육태도보다 통제적 양육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상관분석을 통해 자존감과 양육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바, 자존감은 애정-적대 차원과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여주었고 자율-통제 차원과는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권미란(2007)과 같은 양상이며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애착이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는데, 이 때 애정-적대 양육태도 차원과 자율-통제 양육태도 차원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매개분석 결과 먼저 애정-적대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애착의 영향을 자존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자율-통제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자존감은 독립변인인 애착의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논의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Belsky(1984)의 모델에 따라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이 자녀양육태도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먼저 부모 자신의 애착은 대인관계의 기본 내적작동모델로 작동하는데,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애착은 개인의 발달에서 시간적으로도 초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Bowlby, 1977), 이후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휘숙, 1998). 애착은 많은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도 양육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다시 한 번 애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존감과 같은 자기 관련(self-related) 개념 역시 후속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양육태도의 결정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육태도에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치료적 개입방법이나 부모 교육 및 상담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 행동이나 부모-자녀 갈등으로 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개선으로 양육태도를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 자녀의 문제행동까지 개입할 수 있는 2세대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의 중요한 결정인자인 부모의 심리적 특징에서 애착과 자존감 이외의 다른 변인들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Belsky(1984)의 모델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특징 외에 부부 관계나 자녀의 특징을 포괄하여 양육태도 결정인을 폭넓게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양육태도 형성과 발현에서 애착과 자존감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애착의 경우, 안정애착은 애정적 양육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회피애착은 적대적 양육태도와 그리고 불안애착은 통제적 양육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의 결과를 반복검증한 것이다. 한편 자존감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Schafer(1959)의 애정-적대 차원과 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데(권미란, 2007), 본 연구에서도 상관분석에서는 자율-통제 차

원에 비해 애정-적대 차원과 상관이 더 높았다. 하지만 매개분석에서는 자존감이 애정-적대 차원보다는 자율-통제 차원에서 더 중요한 역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이나 심리상담적 접근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통제적이고 간섭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서도 자존감이 부족한 것 같은 행동이나 태도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고쳐주려고 과도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데, 이러한 통제적 양육태도는 오히려 자녀의 자율성이나 주도성, 또는 자기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권기정, 2008; 김송아, 2008; 김혜인, 2010; 양승윤, 2008; 이미정, 2010). 이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간섭하지 않고 참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간섭하지 않을 때 자녀가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봐 긴장이 증가하여 다시 간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지로 자녀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할 때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애착이 애정-적대 양육태도로 이어질 때 자존감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통제 양육태도로 이어질 때는 자존감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chaefer(1959)가 제안한 대로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이 각각 별개의 차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다. 양육태도를 구분할 때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쉽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통제라고 하면 규칙의 준수나 권위를 강조하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도록 훈련시키는 양호한 수준에서부터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애정철회에 대한 위협 및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심각한 수준(Olsen 등, 2002)까지 다양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처벌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 양육태도와 가까울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개념 구분과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척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온라인 자료수집방법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자료수집 방법은 일반 지필검사식 자료수집 방법과 차이가 있어 결과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Musallam, Schallert와 Kim(2011)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버전과 오프라인 지필검사 방식의 자료 수집에서 참여율과 반응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온라인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상담심리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었다. 온라인대학교 재학생과 일반인 간 차이 또는 상담심리학 과목 수강생과 일반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살펴볼 때 대상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성인애착척도 점수를 살펴볼 때, 김덕일(1996)의 연구대상은 평균연령 30대 중반의 부부로, 의존 평균 17.62점, 친밀 19.54점, 불안 17.19점을 보고하였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김순영(1999)의 연구대상은 대학생으로, 의존 평균 16.59점, 친밀 18.96점, 불안 16.05점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들은 의존 평균 19.30점, 친밀 20.05점, 불안 13.44점을 보

고하였는데,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의존과 친밀과 같은 안정애착 속성은 높고 불안과 같은 불안정 애착 속성은 낮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들의 애착이 기존 연구 대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형성되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socially desirable) 보이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복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MBRI의 통제적 양육태도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57로 낮은 편이었다. 통제적 양육태도 문항들을 살펴보니 부모의 권위 강조, 가정 내 규칙과 규율 강조, 자녀의 공부나 성공 강조의 문항들이 섞여 있었다. 상대적으로 부모상위정서 척도(PMES)의 정서표현통제 척도는 .73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들을 묶어서 사용하였는데, 추후 심리적 통제에 대한 개념을 잘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일부 양육태도 및 자존감 점수의 경우 성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점수 차이 분석을 성별에 따라 각각 실시하였다. 이 때 남성의 경우 애착유형의 주효과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의 표집 한계로 인해 남성 응답자 수가 작았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남성대상 표집으로 성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미란 (2007). 어머니의 자존감, 자기 및 자녀평

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기정 (2008).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행동 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인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승윤 (2008).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정 (2010). 부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옥자 (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정 (1984). 학업성취가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덕일 (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영 (1998). 내담자의 부모 유대 및 성인애착 능력이 상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 (198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 (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혜정 (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이종의 자기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1993).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어머니의 신념 및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 사회적 기술 측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우 (2010). 부모상위정서와 양육태도 및 아동 행동문제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이 (201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호경 (2004). 외동이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2000). 성인애착유형과 대인 불안 수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중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7.
- 안명희 (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유금희 (1985). 어머니의 육아태도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유미, 정미라(2001).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결정유형과 아동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16(1), 157-178.
-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 (2004).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 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77-89.
- 이미정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학교상황과 청소년 우울증과의 관계: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2010). 부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희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응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임진영, 장재숙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6(1), 379-399.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 장휘숙 (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

- 기관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110-121.
- 정은진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혜 (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존감 수준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 (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아동학회, 14(2), 17-34.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insworth, M.,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aldwin, A. L. (1945). Patterns of Parent Behavior. *Psychology Monographs*, 58.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735.
- Bandura, A., & Walters, R. H. (1959). *Adolescent Aggression*. Ronald Press: New York.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umrind, D. (1967).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 169-204.
- Belsky J. (1984). Determinants of parenting.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Fearon, R. M. P. (2004). Exploring marriage-parenting typologies and their contextual antecedents and developmental sequela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3), 501-523.
- Belsky, J., Crnic, K., & Wood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3, 905-930.
- Belsky, J., Jaffee, S. R., Sligo, J., Woodward, L., & Silva, P. A. (2005).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arm-sensitive-stimulating parenting: A prospective study of mothers and fathers of 3-year olds. *Child Development*, 76(2), 384-396.
- Bowlby, J. (1969).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421-431.
- Brody, G. H., McBride, M. V,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th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 Development*, 73(5), 1505-1516.
- Capaldi, D. M., Pears, K. C., Patterson, G. R., & Owen, L. D. (2003). Continuity of parenting practices across generations in an at-risk sample: A prospective comparison of direct and mediated associ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27-142.
- Chen, Z. Y., & Kaplan, H. B.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1), 17-31.
- Cohn, D. A., Silver, D. H., Cowan, C. P., Cowan, P. A., and Pearson, J. (1992).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J. Fam. Issues* 13: 432-449.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nger, R. D., Nepl, T., Kim, K. J., & Scaramella, L. (2003). Angry and aggressive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43-160.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andell, L. E., Fitzgerald, H. E., & Whipple, E. E. (1997). Dyadic synchrony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 link with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8, 247-264.
- Crowell, J. A., and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1273-128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eney, J. A., & Noller, P. (1991). Attachment style and verbal descriptions of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187-215.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 861-868.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N.Y.: McGraw. Hill Book Co., Inc..
- Kanoy K., Ulku-Steiner, B., Cox, M., & Burchinal, M. (2003). Marital relationship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predict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1), 20-28.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Losoya, S. H., Callor, S., Rowe, D. C., & Goldsmith, H. H. (1997). Origins of familial similarity in parenting: A study of twins and adoptive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12-1023.
- Medinnus, R. (1967). *Readings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Wiley; New York.
- Musallam, A. B., Schallert, D. L., & Kim, H. (2011). Do millennial undergraduates's view writing differ when surveyed online versus on pap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 1915-1921.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6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rd ed.), N.Y.: Harper and Row Publisher.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 Husto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N.Y.: Harper and Row Publisher.
- Mussen, P. H. (199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7th ed). New York: Happer & Row.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399-1413.
- Olsen, S. F., Yang, C., Craig, H. H., Robinson, C. C., Peixia, W., Nelson, D., Nelson, J., Jin, Shenghua, & Wo, J.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Bark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derson, D. R., Gleason, K. E., Moran, G., & Bento, S. (199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4, 925-93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I., Lead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205-246). Orlando, FL: Academic Press.
- Schaefer, E. S. (1959). Children's report of parent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Bat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van Bakel, H, J, A, & Riksen-Walraven, J, M. (2002). Parenting and development of one-year-olds: Links with parental, contextual, and child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1), 256-273.
- Watson, G. A. (1961). Some Personality Difference in child related to strict or permissive parental discipline. *Journal of Psychology*, 44, 227-249.
- 1차원고접수 : 2013. 6. 22.
심사통과접수 : 2013. 7. 04.
최종원고접수 : 2013. 7. 18.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Parenting Attitud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Kim Soon Young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Kim Hwan

Seoul Cyber University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ttachment ability and self-esteem on hostile parenting attitude and repressive parenting attitude. 461 online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at parents status and took counseling psychology class participated this study and filled out Adult Attachment Scale(AAS),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 and Repressive attitude subscale of Parental Meta-Emotion Scale(PMES). ANOVA analysis were accomplished to identify main effect of attachment style over parenting attitude. The result was that parents with secure attachment style showed higher affective parenting attitude score and lower hostile attitude score than avoidant attachment style and anxious attachment style. Parents with anxious attachment style got higher repressive attitude score than any other attachment styl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the affect-hostile dimension of parenting attitude was related with depend dimension of attachment. As for close and anxiety dimension of attachment, both the affect-hostile dimension and autonomy-control dimension of parenting attitude were related, but with opposite direction. Regression analysis was accomplished to find out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long the path from attachment ability to parenting attitude. As a result, there was partial mediation role of self-esteem when dependent variable was the affect-hostile parenting attitude. When dependent variable was the autonomy-control parenting attitude, there was ful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Adult Attachment Style, Parenting Attitude, Affect-Hostile Parenting Attitude, Autonomy-Control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